

마라나타 샘과 성지 바로알기

발현과 목격 증인

1997년 7월 30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너희에게 맡긴 내 선교사업(의 목적)은 내 아드님의 재림에 대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 찬미 예수님!” 우리의 모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의 모습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내 아드님께서는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전해주라고 나를 보내셨다.”

1. “하나되신 성심을 통하여 천국과 지상이 일치할 것이기에,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신심을 전파하여라.”
2. “네 앞에 있는 상본(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인 마리아)를 널리 보급하여라. 이 상본 안에 이 세기에 있었던 나의 모든 발현들의 완성이 있다. 이것이 파티마에서 말한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의 피난처이며, 가라반달에서 말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약속이다. 나는 지금 내 성심 위에 있는 왕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왕관은 하나된 성심의 승리와 악을 쳐이긴 교회의 승리를 미리 알려 준다. 내 손에 그려진 십자가는 앞으로 선포될 교리 즉, ‘공동 구속자’에 대한 교리를 나타낸다. 나는 또한 내 성심을 가리키면서 이 안전한 피난처 안으로 온 인류를 초대하고 있다. 이 피난처는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 살 때, 너희는 내 성심을 본받는다.”
3.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자 관문인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여라. 이 단순하고도 심오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은 거룩함과 십계명과 기도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나라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나라는 하느님의 십계명보다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1993년 12월 2일 / 영적 담화

성모님 : “이곳은 나의 중요한 발현지 중 마지막 발현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들이다. 내 작은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들을 책으로 엮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모든 자비의 어머니이며 모든 사랑의 어머니다. 찬미 예수님.”

1996년 8월 12일 / 모든 민족을 위한 월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으로 이곳에 계시며, 성심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회심을 위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저희가 기도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성모님 옆에 발현하셨고 그분의 성심도 드러나 계십니다.

“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러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은총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너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뿐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곁들여 주어진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도직과 발현 장소들이 서로 견제하지 않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경쟁이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각각 다른 장소에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발현하든, 나는 거룩한 사랑인 내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나의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 발현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서로를 갈라놓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이 이런 짓을 하면, 너희는 혼란스러워하며 너희를 부르는 나의 부름의 단일성을 보지 못한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 장소에 오는 것이나 다른 곳에 발현하는 것 등에 너희가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된

다. 내 아드님이 나를 보내시는 모든 장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그리고 지속적인 은총의 현장이 된다. 나는 내가 발현한 곳들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그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한 발현지가 다른 발현지보다 더 위대하고, 한 곳이 다른 곳보다 더 큰 은총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도 화해하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너희에게 온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금 세상에는 나의 승리에 대적하기 위해 건전하지 못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합병된 세력의 형성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자각하고, 기도와 희생으로 이것에 대적하기 바란다. 거룩한 사랑 밖에서는 어떤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거룩한 사랑 밖에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다시 한번 왔다. 내가 너희에게 발현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메시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 아드님께서 너희 기도를 매우 주의깊게 들으실 것이다.”

“국가들은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없다면 정상회담을 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경과 자연 자원에 대한 논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주인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느님과 화해할 때 그들은 마음 속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떠나셨을 때, 하나된 성심이 반짝반짝 빛나며 공중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24일

예수님과 비오 성인께서 이곳에 오시어 두 분 다 J. 신부님을 바라보며 미소지으십니다.

예수님: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어떤 메시지와 어느 발현장소를 믿어야 하는가를 놓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의견들이 나뉘어 낭비되고 있다.”

“오늘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각 영혼이 알아야 하는 것은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개인적 거룩함과 성화를 추구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다른 답과 더 큰 기적과 다른 해결방법 등을 찾으려고 돈을 들여 여행하며 현 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답은 이곳에 있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2005년 10월 10일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예수님: “우리는 오늘 진리의 날개를 타고 너희에게 왔다. 내가 말로써 그 진리를 명백히 밝히겠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내 메신저의 마음을 통해 이 선교사업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려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는 거짓 예언자들과 고위층 인사들의 성명을 통해 메시지를 희석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만, 그는 이 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업은 천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는 오직 한 명 뿐이며, 메시지도 오직 그녀를 통해서만 전달될 뿐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진리를 희석하여 너희 주의를 흐뜨려 놓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목격자들이나 다른 도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메신저(모린)을 돕기 위해서 다른 메신저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비록 그렇게 되면 모린은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니 이 말들을 잘 소화시켜, 너희 마음과 이해의 일부로 삼아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를 강복한다.”

2011년 8월 12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들은 현 순간 뿐 아니라 많은 은총 또한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안배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약하다는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주 다른 ‘목격증인’들을 쫓아다니며 미래에 대한 (그 목격증인들의) 식견을 추정하는 데 힘을 낭비합니다. 각 영혼에게 각각의 현 순간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미래의 순간도 각 영혼마다 다를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익하며,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가지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적게 신뢰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둔다면 결코 잘못 인도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존입니다.”

“이 선교사업은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쌓아올리기 위해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일치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의 문제 등으로 사탄에게 분열의 시간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은 진리가 아닌 오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간과 날짜를 들어 예견하는 이들을 신뢰하지 말 것을 말해주러 왔다. 너희는 이런 예언에 맞춰 세상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섭리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각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삶에서 언제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라.”

“이 선교사업은 언젠가 내 앞에 서게 될 영혼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로 이 심판의 순간을 위해 너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는 ‘영적인 피난처’

1995년 3월 18일

우리의 모후께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시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나는 영혼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자 왔다. 예수님을 찬미하자. 내 자녀들아, 예수님께서 내 기도센터가 이 세상에서 평화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어 영혼들을 회심과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내 성심의 피난처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관문)임을 너희가 전파하게 하셨다. 이 장소에서는 내 티없는 성심이 이미 승리한 것이다. 내 승리는 모든 영혼 하나 하나가 회심할 때 일어난다. (주: 이것은 영적인 피난처이지 물리적인 피신처가 아님)”

“십자가가 내 승리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십자가는 이 교회와 너희 삶에 구원과 승리의 진정한 수단이다. 정말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가 은총에 협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주고 싶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으로 초대하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벌써 너희 안에 내 승

리가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1995년 3월 23일

우리의 모후께서 파란색의 옷을 입고 계시며 흰 베일을 쓰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방문하는 이 은총을 허락하셨다. 다 함께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일 내가 이곳으로 부르는 이들을 위해 나와 함께 지금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를 이 통치권으로, 내 티 없는 성심인 이 영적인 피난처로 부른다. 세상에 안전한 피신처가 있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자는 너희의 영혼을 원하며 너희의 파멸을 보기 원한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의 길 즉, 거룩한 사랑으로 부른다. 내 어린 자녀들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우리의 모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1995년 6월 1일

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후께서는 전날과 같은 옷을 입고 오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이 달은 내 아드님의 거룩한 성심 성월이다. 너는 내 선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서는 아주 후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많은 것을 말씀해주실 것이고 너는 그분께 찬미를 드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성모님, 물리적인 피난처들을 만 들고 계시나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노아가 ‘안전’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보호하셨다. 많은 이들이 안전한 땅을 찾기 위해서 내 영적 피난처의 센터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오직 마음만을 보시는 내 아드님께서는 쫓정이를 골라내실 것이다. 전통적인 신앙을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이끌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면 작은 신앙의 무리들이 참된 교회의 남은 자들이 되어 다시금 번창할 것이다. 나는 폭풍우 속의 항구다. 네 선교사업(내가 네게 맡긴 나의 선교사업)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업들 중의 하나다. 이 선교사업 안에서 변화되어라.”

1997년 3월 12일

우리의 모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찬미 예수님. 나의 딸아, 나는 다시 한번 모든 민족에게 말하고자 내 아드님을 대신하여 왔다. 나는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관리들의 삶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들을 지지하지 말도록 내 말에 귀 기울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준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내 아드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 손안의 정의(심판)의 저울은 거룩한 사랑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과 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 자체가 너희의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마음 속 거룩한 사랑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라고 응답할 때 너희는 거룩한 사

랑을 집으로 가져가며,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너희 가족과 너희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 이제 모든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응답으로 감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작은 불씨는 널리 퍼져나가야만 한다. 나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하고 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미.”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선교사업과 이 책을 읽고 내가 너희에게 준 기적적인 상본을 통하여 변화될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성모님께서서는 ‘인류를 부르시는 천상의 마지막 초대’라는 새 거룩한 사랑의 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노력만 가지고는 성취될 수 없으며 오로지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곳의 내 선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에게 나타내주는 표징이 되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곳은 나를 위해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광야라는 사실을 오늘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곳은 요한 묵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인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된 예수 마리아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또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보낸다.”

1998년 9월 26일

성모님께서 수많은 칼에 찔린 성심을 드러내시고 회색 옷을 입고 통고의 모후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찬미. 내 딸아, 나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내 자녀들을 내 성심 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실로, 커다란 심연이 천상과 지상 사이를 더 크게 갈라놓고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내 티없는 성심의 피난처로 부르기 위해 왔다. 사람들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이 재앙이며 재산을 잃는 것만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성심의 피난처는 너희를 가장 참혹한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 불행은 바로 너희의 영혼을 잃는 것이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내 성심을 이 시대의 방주로 미리 정해두셨음을 깨달아라.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 성심을 물리적인 피신처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빨리 이곳을 찾았겠느냐

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적인 것과 영혼 그리고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왔다. 너희는 이것들을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이것들은 실재하며, 영원하다. 이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너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들이 된다. 내 초대를 제쳐두고 너희 생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지 마라. 너희 어머니인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도 계속 그리하고 있다. 나는 내 성심의 포용으로 모든 영혼을 감싼다. 너희를 축복한다.”

2011년 5월 1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천상이 이 성지에서 너희에게 주는 피난처는 육체적인 피난처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요즘에는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모든 이에게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영적인 피난처, 곧 내 어머니의 성심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이 영적인 피난처의 한 부분이다.”

“또한 이 메시지를 실천하며 살기로 선택한 이들은 이 영적인 피난처를 마음속에 지니게 된다. 이 영적인 피난처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고, 그 안에서 참으로 성화되도록 하여라.”

미래를 위한 준비

2010년 2월 11일 /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성모님께서 루르드의 성모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지상에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메시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오늘, 통제권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계획에 지나지 않은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에 지구가 파멸에 직면해 있음을 온 세상이 깨닫기 바란다. 단일 세계 질서 (One World Order)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비밀리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겉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을 이롭게 하려고 시작된 사악한 계획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거룩한 사랑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지향한다.”

“하느님께서 폭력을 묵과하지 않으며, 권력이나 세속적인 물품들을 축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형태의 정부 안에도 계시지 않는다. 또한 하느님께서 비밀 결탁 속에도

계시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은 진리 그 자체인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이들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교회 내에서까지도 겉으로 보기에 ‘가치’ 있는 대의를 이유로 진리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거짓에 기반을 둔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결코 성공하지도, 지속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와 사회와 교회 안의 정의롭고, 진실하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기 바란다. 오늘날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악에 대항하기 위한 힘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마음을 다하여 너희 천상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이 말들을 전하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2011년 4월 6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견뎌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미리) 비축해 두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인 안전보다도 마음속에 믿음을 쌓아나가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을 신뢰할 때, 인간은 믿음에 위배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아주 음흉하고 교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이 시대에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요구하러 지상에 내려오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칭호 앞에서는 사탄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들어온 모든 청원을 아드님께 곧바로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나 재정적 안정이나 모든 물품에 붙여다친 위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격하는 곳과 공격하는 방법 들을 알아보십시오.”

2011년 4월 9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선교사업의 목적이 가상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숨을 장소와 짐을 꾸리거나 창고에 저장해두어야 할 물품 목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조장하는 데 있지 않음을 모든 이가 부디 깨닫기 바란다. 이 선교사업의 목적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 은혜를 알아볼 것이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때때로 천상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그것은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4월 11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형제자매들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너희의 가장 큰 자산은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가 항상 믿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보호자이신 내 어머니께 기도한 다음, 의탁하여라. 언제나 내 신성한 은혜를 신뢰하여라.”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2011년 4월 13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딸아, 언제나 기도 안에서 힘을 얻어라. 내 티 없는 성심에 의지하여라.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 충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다. 그러니 청원을 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따라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려라.”

“나 역시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 육체적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그분의 상처를 치료해 드리거나 그분을 대신해 숨을 쉴 수는 없었지만 기도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였다. 기도는 결코 이차적인 대안이 아니라 최상의 방어다.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피하고 그의 간계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결국 기도는 원수를 무장해제 시킨다.”

“기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은 너희에게 기도를 단념시키려 노력하며 너희가 기도의 힘을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거나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마라. 기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추가 악에서 선(善)으로 기울게 만든다.”

2011년 4월 17일 / 주님 수난 성지(聖枝) 주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 마음 속에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지극히 불안한 이 시대에 세상에 주어진 확실하고 안전한 요새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영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신다. 너희가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영적인 복지다. 너희 영혼이 멸망에 빠져버린다면 육체적인 안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겪지 않게 될지도 모를 미래의 일들에 대해 지레 걱정하는 두려움 속에는 사탄이 있다. 비록 어려움에 직면한다 해도 너희는 내 안배의 은총이 너희를 어떻게 보살필지 지금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사이에 현순간의 은총이 새어나가고 있다.”

“노아의 시대에 그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대비하였다. 그는 온갖 조롱과 불신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다. 오늘날에 너희에게 주어진 방주는 바로 내 어머니의 성심이다. 너희는 깊은 신뢰로 거룩한 사랑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만 내 어머니

의 성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길을 준비해 놓았다.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주었다.”

2011년 4월 1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요즈음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데에 그들의 영적인 초점을 둔다. 그들은 물품을 축적하고, 숨거나 피난할 장소를 구상하는 데 상당히 열성적이다. 나는 이런 신중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인 ‘사재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영적인 노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일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이 내 신뢰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만 믿거나 자신의 복지만을 추구한다면 나는 너희 마음에 말을 걸거나 너희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 나는 자신을 과신하는 이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나는 너희에게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로 건설된, 천국과 지상 사이의 다리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실천하는 한 너희는 흔들

리지 않을 것이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중하고 슬기롭게 매 현 순간을 살아라. 현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매 현 순간 안에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 깃들어 계신다.”

2011년 5월 1일 / 하느님의 자비 축일

처음에 하나되신 성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상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형제자매들아, 이 선교사업에 대한 너희의 깊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다시 왔다. 오늘 나의 자비로운 사랑을 너희 마음 안에 부어 주고 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지만, 이 자비의 때에 이어 곧 정의의 심판의 때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보호를 청하여라.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내 어머니의 성심 안에 맡겨라. 그러면 어머니께서 당신 성심의 은총으로 너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형제자매들아, 일치하여라.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여라.”

“오늘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 왜 따라야 하나?

2016년 6월 5일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 영혼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나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이라는 곧게 뻗은 좁은 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여정에 대해 아는 것은 큰 은총이다. 이 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내 지극히 비통한 성심에 또다시 상처를 입힌다. 영혼은 이 거룩한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을 하지 않고

도 구원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어렵다. 그것은 마치 지도를 없애버린 후에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서 보물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의 일치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일치를 바라며 너희에게 왔다. 이것이 이 천상적 개입과 이 선교사업과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의 목적이다...”

2017년 3월 9일

모린이 여쭙습니다. “성모님, 영혼이 하나되신 성심에 대해 알

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되신 성심 안으로 들어가나요?”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
 미 예수님.”

“신성한 뜻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은 사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여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
 이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영혼이 이 사실을 깨
 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 똑같다 - 즉, 하나된 성심이
 곧 신성한 뜻이다...”

2017년 5월 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신성한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은 거룩한 사랑
 의 완덕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거룩한 사랑의 완덕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은 너희를 신성한 뜻에 더욱더 일치시
 킨다.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은 거룩한 사랑
 의 완덕에 이르는 길이며 신성한 뜻과의 일치를 위한 지침이
 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의 뜻
 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

2017년 5월 10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
 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여정을 부디 귀하게 여겨라. 이것은 여러 목격증인들에게 주
 어진 다른 모든 메시지들에서 빠진 부분이다. 다른 많은 메시
 지들은 신성한 뜻 안에서 사는 주제를 다루는 반면 우리의 하
 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은 신성한 뜻 안으로 들
 어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먼저 여정을 떠나지 않고서 목적지
 에 도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것은 복잡한 여정이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과 자신의 결
 점에 대한 내적 시인이 요구되는 여정이다. 절대 너희 스스
 로 너희가 몇 번째 심방에 있다고 추정하지 말고 그저 계속
 해서 여정을 하여라.”

2017년 6월 2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

미 예수님.”

“세상에는 특정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이 있다. 너
 희는 망치를 사용해야 하는 일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지는 않
 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신성한 뜻 안으로 너희를 인도
 하기 위해서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이라는 ‘도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간결한 개요다. 너희가
 즉석에서 다른 물건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성
 한 뜻과 일치하는 데에도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
 나 가장 좋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
 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이다. 천상이 이 ‘도구’를 너희에게 주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만,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을 한
 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된 성심의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나를 보내셨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
 쳐가는 여정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의 일치에 이르는, 심
 지어 신성한 뜻 안의 침잠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여정이다.
 이와 비슷한 다른 길은 주어진 적이 없다. 이 여정은 생활 방
 식이며 개인적 거룩함의 헌신이다.”

“이 여정은 거룩한 사랑의 수용을 요구하며, 거룩한 사랑은
 계명들의 수용을 요구한다. 거룩한 사랑이 계명들의 구현이
 기 때문이다. ‘하나된 성심의 계시’는 모든 영혼을 위한 하느
 님의 ‘명하시는 뜻’이다.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나는 너희
 가 거룩한 사랑을 따라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한다.”

“...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을 따르는
 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2005년 3월 25일 / 성 금요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훗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과,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성심회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성심회는 내 성심인 신성한 사랑의 샘을 열어 모든 사람이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 영혼은 완덕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을 얻으며, 신성한 사랑을 찾고 또 신성한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07년 4월 8일 / 부활절 아침

“나는 부활한 예수다!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죽음에서 부활한 나를 경축한다. 오늘은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연 날이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으로 가는 문은 이 선교사업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열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이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은총의 통로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 너희는 내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수의 영혼들만 여섯 번째 심방인 신성한 뜻의 영원한 불꽃 속에 잠긴다. 그러나 오직 극소수의 영혼들만 이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몹시 슬프다...”

2015년 9월 25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 구원을 원하는 이들은 거룩한 사랑의 금언에 매달려야만 한다. 이것이 각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이다. 몇몇 (다른) 길들도 너희를 하느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가장 직통이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길이다.”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라는 장애물 외에는 이 영적 여정을 가는 것을 막는 경계는 없다. 이것이 양심이 거룩한 사랑인 진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진리는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가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없다. 잘 형성된 양심은 이 거룩한 심방들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각 심방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

* 이것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의 저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152번 문단

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참된 신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완덕인 그리스도와 일치에 이르는 쉽고, 빠르고,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다.”).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로 가는 가장 직통이자 가장 쉽게 가는 길은 하나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인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심방인 신성한 뜻 안에서의 침잠에서 끝납니다.

2017년 4월 22일 /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내 신성한 자비의 은총을 통해 이 조연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너희의 여정을 더욱 심화시켜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2017년 4월 23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이 선교사업의 토대는 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신성한 뜻 안에서의 침잠으로 이끄는 여정이다. 거룩한 사랑은 신성한 뜻이다. 그러므로, 나의 요청은 이 선교사업과 관련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전능하시며 완벽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들을 면밀히 지켜보시기는 하지만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지는 않으신다. 선 대신 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다...”

“거룩한 사랑은 언제나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였다. 이제 거룩한 사랑은 사람들을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과 내 아버지의 뜻과의 일치로 이끌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내 신성한 자비의 한 부분이 되었다. 내 자비를 구하는 이는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또한 거룩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어부의 그물같이 거룩한 사랑과 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바로 내 자비다. 내 자비가 없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내 아버지의 뜻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너희에게 오고 있다. 이것은 내 자비의 활동이며, 너희를 향한 내 부름이다. 이 부름을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현 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한 내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가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그분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인 것이다.”

2017년 6월 9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다. 내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은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에 대한 너희의 헌신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상에서는 절대 끝나지 않는 여정이다. 이 여정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내 신성한 뜻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여정에) 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 중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

2013년 5월 26일 / 삼위일체 대축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하나된 성심의 계시를 묘사한 상본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삼위일체의 결합을 나타낸 것이다. 거룩함의 완성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을 통해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이 심방들은 바로 완덕 그 자체이신 내 아버지의 뜻과의 일치 를 위한 지침이다.”

2001년 3월 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온갖 종류의 영적 훈련들과 내가 가르치고 교회에 맡겨둔 모든 것은 내 거룩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에 바탕을 둔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그러나 이 여정에 내맡기는 것이 너희 각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바란다. 영혼의 내맡김이란 마음속에 있는 겸손과 사랑의 깊이 정도만 완전할 수 있기에, 부족한 겸손과 불완전한 사랑은 이 여정을 방해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즉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맡길 수 없다.”

2015년 6월 1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세속 단체들에 의해 승인되었든 승인되지 않았든 천상의 개입은 죄인들의 마음의 회개를 촉구한다. 그러나 너희도 지금쯤 깨달았겠지만, 이곳의 천상의 개입은 이곳에 베풀어지는 은총과 신심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상이다. 이 선교사업은 (이미) 시작된 어려움들, 내 재림이 도래하기 전에 더 심

화될 이 어려움들에 대한 힘과 보호를 제공한다. 이것은 남은 신자들을 향한 부름으로, 이 성지에서 소개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던,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미리 정해진 여정인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 안에서 일치하라는 부름이다.”

2000년 1월 1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 만약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에게 이 여정이 쉬워 보인다면, 그것은 너희가 이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내 천사들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여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2014년 5월 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엄숙히 말하지만,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읽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메시지가 됨으로써 거룩한 사랑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것이 내 심판을 완화시키고 내 비통한 성심을 달래주는 길이다.”

“이 일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희 구원의 길이기에 때문에 매우 어렵다. 먼저 이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부름에 내맡길 수 없다...”

2000년 7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와 함께 내 성심의 심방들을 빠르고 확실하게 전진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왔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을 통하여 오는 것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것이며, 이 내맡김 안에 모든 성덕들이 작용한다. 이 내맡김에서 자아가 소멸된다. 영혼은 자신이 어떤 심방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대로 현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너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천상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4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 이 메시지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메시지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성령이신 진리의 영에 마음
을 열지 않은 것이다.”

2010년 8월 13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밤에는 이 메시지들 안에 제시한 영
적 완전함에 이르는 거룩한 사랑의 여정으로 다시 한번 너희
를 초대한다. 이 길은 거룩한 사랑 그 자체이신 내 어머니 성

심에서 나오는 불빛이 밝히고 있다. 내가 너희의 개인적 거
룩함과 성화를 바라니, 메시지들을 공부해서 메시지에 교화
(敎化)되도록 하여라.”

2011년 3월 4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
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로 들
어가는 너희의 개인적인 영적 여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거룩
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학습하라고 너희에게 권한다.”

“그저 최근의 메시지만 보거나 현재의 거룩함에 만족하지 말
고 너희 자신의 영적 여행에 모든 메시지들을 적용하여라. 이
것이 바로 이 메시지들이 주어진 이유다.”

* 이 메시지는 1986년부터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 카
일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천상의 메시지 중 주제
별로 발췌한 일부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
회(Holy Love Ministries)의 웹사이트로 들어가시
면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lylovekorean.com (한국어)

www.holylove.org (영어)

Rev. 4.2021